

“역대 회장들 업적 위에 더욱 빛나는 동문회 꿈꿔”

김영석 학교법인 유은학원 제30대 총동문회장 취임
“광주상고·광주동성고 명칭 문제, 특위서 의견 수렴”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고·광주동성고·광주동성중·광주동성여중) 총동문회는 최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2층 아델리아홀에서 2026년 정기총회와 29대 박규환(광주미래연 구소 이사장·광주상고 26회) 회장 이임식 및 30대 김영석(농업회사법인 ㈜맛나 대표이사·광주상고 27회)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은학원 정행웅 이사장과 학원 산하 광주동성고·광주여상고·광주동성중·광주동성여중 등 4개 학교 교장·행정실장·학생회장, 총동문회 오찬교(중앙강철 대표·국제로타리 3710지구 전 총재·광주상고 21회)·한상원(다스 코㈜ 대표이사·광주상공회의소 회장·광주상고

23회)·마성우(NS종합건설㈜ 대표·광주상고 25회) 역대 회장, 최근 첫 직선제 신협중앙회장에 당선된 고영철(광주문화신협 이사장·광주상고 27회) 동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또 구제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국제레이온스협회 355-B1지구 전 총재), 윤종현 국제로타리 3710지구 구실회 의장, 입석로타리클럽·법무부 광주교도소 교정협의회·조심회 회원 등 외부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를 했다.

이·취임식은 박규환 29대 회장 이임사, 총동문회 기 전달, 김영석 30대 회장 취임사, 정행웅 유은학원 이사장·이개호(광주동성중 23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윤병태(광주상고 27회) 전남 나주시

장·백강철(광주상고 31회) 제경동문회장·오경미(광주여상 19회) 광주여상고 총동문회장 축사, 이임 회장에 대한 공로패 및 기념품 전달, 30대 집행부 임명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석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역대 회장들의 뛰어난 업적 위에 더욱 빛나는 유은학원 총동문회를 꿈꾸며 올해 슬로건으로 ‘꿈을 현실로’ 정했다”며 “본질은 하나임에도 각기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는 광주상고와 광주동성고 명칭 문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은학원 총동문회 30대 집행부는 김영석 회장을 비롯해 당연직 수석부회장인 백용우제경동문회장과 오경미 광주여상 총동문회장, 박민규(광주상고 35회·총동문회 전 사무총장) 특임부회장, 위은희(전 신한은행 PWM광주센터장·광주여상 27회)·박규방(국민은행 풍향동지점장·광주상고 40회) 감사 등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학교법인 유은학원 총동문회는 최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2층 아델리아홀에서 2026년 정기총회와 30대 김영석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호남 1세대 건설인 마형렬 남양건설 회장 별세

강진 태생…‘남양휴튼’ 브랜드로 지역 건설업계 산증인 우뚝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1세대 건설 기업인 마형렬 남양건설 회장이 지난 13일 전남대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91세.

1935년 전남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에서 태어난 마 회장은 ‘고객과 더불어 함께’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67년 업력의 종합건설업체인 남양건설을 일궈낸 지역 건설업계의 산증인이었다.

고인은 1972년 남양건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남양휴튼’ 브랜드로 대표되는 아파트 건설과 항만, 도로, 터널, 간척, 택지, 해상교량, 철도, 지하철, 주택, 특수시설물 등의 책임 시공을 이끌며 현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 해왔다. 특히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시공하는 등 굵직한 관급 공사를 수행했다.

고인은 제13대~16대(1991년 7월~2002년 3월)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을 역임한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지방



건설사 출신 최초로대한건설 협 회장 (2002년~2005년)에 추대됐다.

당시까지저울 대형 건설업체 대표가 맡아오던 관례를 깨고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또 2002년부터 5년간 광주상공회의소를 이끌면서 지역 상공인들을 대변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썼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고인

은 장학사업에도 족적을 남겼다. 2006년 남양문화재단을 설립해 저소득층 대학생과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 등 소외된 지역민 지원 사업에 앞장섰다.

국가 경제와 지역 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1985년), 국무총리 표창(1989년), 금탑산업훈장(1994년), 대통령 표창(2002년) 등을 수상했다. 조선대학교 명예경제박사, 목포해양대학교 명예공학박사 학위, 러시아 극동 국립 교통대학교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유족으로는 마찬호 남양건설 부회장 등 1남2녀가 있다.

장례는 남양건설 회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 국민장례문화원 201호, 발인은 16일 오전 9시.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순천시 왕조1동 트리마제 순천 1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희망2026 나눔캠페인을 통해 이웃돕기 성금 1055만원을 모금해 기부했다.

순천 왕조1동 트리마제 1단지, 따뜻한 동행 실천

이웃돕기 성금 1055만원 쾌척

순천시 왕조1동 트리마제 순천 1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희망2026 나눔캠페인을 통해 이웃돕기 성금 1055만원을 모금해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왕조1동 희망나눔 캠페인 사상 최고 금액으로, 지난 9일 트리마제 입주인 대표 주지현씨가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민들의 뜻을 담아 전달했다.

성금은 입주인 대표가 직접 개발한 아파트 소통 플랫폼을 활용해 모금됐다. 해당 플랫폼은 기존 생활 불편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해 입주

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번 기부로 트리마제 아파트는 사랑의 열매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하게 됐다. 나눔리더스클럽은 3년 내 1000만원 이상 기부한 개인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기부 프로그램이다.

주지현 입주인 대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마음을 모아 준비한 성금이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나눔을 실천해 준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소중한 마음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

빛고을안전체험관, 외국인 유학생 소방안전 체험교육

조선대 예비 외국인 유학생 340명 참여…안전 확보 대응

광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13, 14일 이틀간 조선대학교 예비 외국인 유학생 등 34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체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교육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화재와 자연재난 등 각종 위기상황 발생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을 체험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몽골 국적의 조선대학교 예비 외국인 유학생과 인솔자 등 340명이 참여했으며,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주요 체험 시설을 활용해 진행했다.

교육은 화재, 호우, 생활안전 등 5개 체험구역에서 실시됐으며, 참가자들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체험을 통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고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익혔다.

최종필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체험기획과장은 “예비 외국인 유학생들이 언어와 문화 차이로 재난 대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지속해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방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13, 14일 이틀간 조선대학교 예비 외국인 유학생 등 34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체험교육을 진행했다.

“호남의 방패…승리하는 충장부대 만들 것”

김도열 육군 제31보병사단장 취임

김도열 소장(진)이 육군 제31보병사단 신임 사단장으로 취임했다. 육군 제31보병사단은 14일 광주 북구에 위치한 사단 사령부에서 제2작전사령관 김호복 대장 주관으로 제42대 사단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김도열 사단장은 취임사를 통해 “호남의 방패이자 따뜻한 동반자로서 반드시 승리하는 충장부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충장부대를 만들겠다”면서 “국민은 안심하고, 장병들은 군복 입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열 사단장은 전남 구례 출신으로 1997년 육사 53기로 임관했다. 레바논평



14일 김도열 신임 31사단장(오른쪽)이 김호복 제2작전사령관으로부터 부대기와 함께 지휘권을 인계받았다.

화유지단장, 제72보병사단 참모장, 제2작전사령부 동원참모처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9일 장군 인사에서 소장 진급과 동시에 31사단장에 보직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건협 광주전남지부, 사회공헌 건강검진 실시

로템그룹홈 아동 대상 건강상태 종합 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로템그룹홈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건강검진은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협 광주전남지부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아동들의 건강안정성 지원을 위해 기초검사를 비롯해 소변·혈액 검사, 흉부 X-ray 촬영 등 제공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박종석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본부장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검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선도하는 지역 공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새마을지도자고흥군협의회, 사업 방향 논의

지난해 주요사업 실적 보고

새마을지도자고흥군협의회는 최근 새마을회관 회의실에서 새마을지도자고흥군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군 회장을 비롯해 읍·면협의회장 및 부회장 등 40여명의 새마을지도자가 참석해, 지난해의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새해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6년도 기본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도 살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실천 중

심의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밀착형 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경원 새마을지도자고흥군협의회장은 “이번 정기총회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회원 간 화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새마을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본사방문

▲이상용 전남도 대변인
▲최영주 "관광체육국장
▲유덕규 "농축산식품국장 직무대리
▲서형민 "기획홍보담당관
▲이선국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